

여학우들과 함께 갈라볼루

>> 내 이야기

어릴 때는 몰랐다.

엄마가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인형을 사주는 것이 마냥 좋았다.

오빠나 남동생들보다 내가 다소곳하고 조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빠와 남동생은 나와 다른 대접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나와 다르게 그들은 우리집을 이끌어갈 대들보이기 때문에...

난 시집가면 그만인 딸이니깐...

머리가 조금 굵어졌을 무렵 어렸듯이 이건 아니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성적과 임신 때문에 그런 슬데업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쏠대나는 삶을 살아야지..

부모님의 간성에서 벗어나 지적으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난 당당한 커리어우먼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야지...

야호!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나에게 핑크빛 미래만이 존재할꺼야...

대학교를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웠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강압적이고 남성적인 것이 무슨 근대같기도 하고, 좀 선정적이기도 한 놀이문화...

아.. 이런 것이 대학문화인가 보다.

이런 것 쯤이야...

앞으로 내가 잘하기만 하면 이런 건 문제될 리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과방은 참 좋다.

동기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가끔씩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런 과방이 불편할 때도 있다.

복학생 선배님들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가 보다.

키득키득 웃으시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시기도 한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나도 거기에 끼어 들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던 묘한 분위기가 나를 감싼다. 조금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런 분위기는 뭘까...

난 대학교의 수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님들에 대한 환상도 있었다.

TV를 보면 대학교의 수업시간에는 토론도 활발하고 연구도 많이 한다.

우리 교수님은 정말 학자 같으신 분 일꺼야...

그러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이상한 말씀을 들었다.

평소에도 여학생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한테는 큰 기대도 하지 않고 무언을 잘못해도 많이 혼내지 않으신다.

오늘은 아예 여학생들은 시집만 잘가면 된다고 하신다.

거기다 야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신다.

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했다.

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언어적인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걸 언어적인 성폭력이라고 하는건가...

설마... 우리 교수님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걸꺼야...

첫 MT를 다녀왔다.

무척이나 기대한 MT였다.

하지만, 밤에 술을 먹다가 이상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

선배가 술이 많이 취하셔서 나를 막 만지고 껴안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MT에서 돌아와서도 무서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이야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곳도 없다.

견디다못해 주위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나를 위로해준 사람도 많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귀여운 후배이고 해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러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과민반응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그래도 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그 선배를 다시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선배가 있을지도 모르는 과방에도 들어가기 싫었다.

그런데 그 선배는 MT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너무도 태연했다.

신문에 보니깐 2세대 여성 중에서 10%가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너무나 놀라웠다.

우리 포대들 중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간혹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포주의 차취로 돈을 늘 빼앗기고 인권유린의 실태도 엄청나다고 한다.

효순이와 미선이를 죽인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 곳을 기지촌이라고 하던가...

그곳은 현대판 위안부라고도 한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한을 풀시기 위해 투쟁하신단다.

내 동생 나이만할 때 끌려가셔서 온갖 성폭행을 당하신 할머니의 억울함이 안타까워서, 그 한의 세월이 너무도 아파서 가끔씩 나는 위안부할머니들께 어깨를 주물러드리러 간다. 어제는 그렇게 일본군의 사과만을 기다리던 한 할머니께서, 일본의 사과를 듣지 않고는 억울해서 돌아가시지 못하신다는 한 할머니가 끝내 돌아가셨다.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

대략을 들어오기만 하면 핑크빛으로 펼쳐질 것만 같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듯 했다. 반대나는 커리어우먼으로 살고자 했던 내 꿈은 부서지고 있는 듯했다.

너무도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여자로만 보는 시각이 내 미래를 어둡게 했다. 너무도 비일비재한 성폭력과 사회에서의 소외감이 날 힘들게 했다.

하지만 난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핑크빛 꿈이 산산히 부서져가는 내 친구들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 여성주의 의식지형을 만들어갑니다.

99년 이후로 민족복현에서는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따라서 여성주의 의식지형도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합니다.

민족복현의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해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전반적인 여성주의 의식지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화장실 선전과 백지 대자보
- 여성문제 기획선전
- 여성 게시판 설치
- 과방 포스터 제작 사업

2. 상시적으로 일꾼 교양사업을 진행합니다.

일꾼들이 먼저 여성주의 의식지형을 가지고 학우들의 대할 때만이 학우들의 여성주의 의식지형도 만들어집니다.

-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와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한 일꾼학교

3. 과 여학생회장 세로모임을 진행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과 여학생회장님들의 위치는 과내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거나, 그 위치 자체가 유명 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 여학생회장 세로모임을 진행하여 과 여학생회를 튼튼히 세우고, 과 여학생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여성주의 의식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마당사업을 진행합니다.

민족복현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제에서 마당사업으로 학우들을 만납니다. 뛰어놀면서 한편 어우러지는 대동제에서도 여성주의 의식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여성국이 과회장님들을 만납니다.

민족복현의 중심, 과에서 중심이 되는 과회장님들이 바로서야 과학우들의 의식흐름이 잡힙니다.

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반(反)성폭력 운동을 벌여갑시다.

1.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학우들과 함께 갑시다.

반(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은 민족 북현 반(反)성폭력 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반(反)성폭력 운동의 기폭제가 될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사업은 학우들속에서, 학우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 학생회, 단대 운영위, 중앙 운영위 등 골간체계를 통한 반(反)성폭력 학칙 간담회
- 학칙안에 대한 학내 공청회
- 과 학생회장과 새내기 대표가 함께 하는 선언운동

2.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우리 주변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봅시다. 우리 과학우들은 이러한 행동하지 말기, 우리 과학우들은 이렇게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기 등의 약속을 하는 자치규약으로 우리 과에서부터 반(反)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갑시다.

3. 반(反)성폭력 릴레이 강연회

성폭력 사건의 아주 많은 사례 중의 하나가 그것이 성폭력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성폭력 사건이 되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끔찍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부터 반(反)성폭력 운동의 시작입니다.

4. 수업 시간에도 반(反)성폭력 운동은 계속됩니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성폭력은 숨어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라고 해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다 보니 그 자리에서 제기하면 성적에 해가 있을 것 같고, 참고 있자니 너무나 억울하고 불쾌합니다.

이제 교수님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야기 해 봅시다. 이제껏 혼자라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해봅시다.

- 수업시간 중 언어 성폭력 실태 조사와 신고 접수

5. 농활 중에도 반(反)성폭력 운동, 예의일 손 없습니다.

농민과 학생의 연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농활기간에서 이제껏 무수한 성폭력 사건이 있어왔습니다. 농민과 학생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사업이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져서는 안됩니다. 미리미리 예방해서 밝고 활기찬 농활을 만들고, 농민과 학생의 끈끈한 유대도 만들어갑시다.

6. 성폭력의 사각지대 화장실에 벨을 설치합니다.

화장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훔쳐보기와 무단침입입니다. 특히나 밤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수위실이나 경비실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화장실 벨을 설치합니다.

셋, 올바른 성(性)문화 정착으로 활기찬 대학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1. 새내기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우리 귀여운 새내기들, 성인이 되는 만큼 성(性)에 대해서도 급격히 개방되는 시기이고, 또한 그만큼의 책임도 따를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그 중에서도 성(性)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른 성(性) 가치관을 세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릇된 성(性)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性)인식과 상품화, 성폭력까지 낳게 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性)지식을 깨고, 제대로된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性)문화를 정착시키고 활기찬 대학문화를 만들어갑시다.

2. 양성평등한 모꼬지 문화 만들어갑시다.

과·단대 모꼬지는 과·단대 학우들이 단합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성폭력·군사주의 문화·가부장적 문화의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한 모꼬지 문화 만들어가기는 또 하나의 반(反)성폭력 운동입니다.

- 모꼬지 성폭력 감시단 활동
- 모꼬지 군사주의 문화 척결 - 선후배 사이 위압적인 분위기, 기합훈련에 대한 제기
- 모꼬지 가부장적 문화 척결 - 양성평등한 생활수칙 제안하기

넷, 여학우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여학우들은 가끔씩 과 생활 같은 것들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학우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 바람직한 여성상인 것처럼 키워지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느 곳이든 주인으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학우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로 일떠서는 여학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1. 여성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지만,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성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2. 살아숨쉬는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어 갑니다.

여학우들만의 공간이지만, 여학우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진정 여학우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 여학생 휴게실 홍보 사업
- 여학생 휴게실 관리자 모임

다섯, 농활시기 여성농민반을 강화합니다.